

새 책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미류와 지음)=인권활동가, 문화인류학자, 플라스틱 프리활동가, 배달 노동자, 홀리스 활동가,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영화감독, 작가, 영상류학자, 정치학자 등 10인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사각지대를 짚는다. 창비, 1만5000원.



▶코즈모폴리탄 칭기즈 칸(서정복 지음)=팍스몽골리카를 이룬 최초의 코즈모폴리탄 칭기즈 칸. 책은 칭기즈 칸 루트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자 그의 탄생과 성장, 발자취와 흔적을 따라 직접 몽골초원을 서너 차례 답사해 쓴 전작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가운데 좀 더 깊이 칭기즈 칸의 사상과 행적에 관한 사료만을 모아 정리, 보충해 재집필한 것이다. 학교재, 1만5000원.



▶내향형 인간의 농담(염문경 지음)=‘팽수’의 작가 염문경의 첫 산문집. 세상이 무례하게 느껴질수록 좋은 농담이 필요하다 믿는 그는 자신의 일과 일상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를 날카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버렸다. 세상과 자신 안의 모순까지 모두 깎집어내 부드럽게 꺼안으려는 시도 속에서 조금은 짓궂을지라도 해롭지 않은 농담을 만들고자 하는 창작자의 섬세한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북하우스, 1만5000원.



▶이제는 대기업을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손영배 지음)=책에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진로 탐색으로 인생을 개척한 10명의 경험담이 수록되었다. 저자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시각을 바꾸면 괜찮은 취업처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하고 진짜 일을 찾을 때라고 강조한다. 생각비행, 1만6000원.



▶나를 바꾼 기록 생활(신미경 지음)=더 나은 일상과 실천에 대해 글을 쓰는 미니멀리스트 작가는 자신의 '기록 생활'을 책 속에 담았다. 자산 관리 스프레드시트, 쇼핑 리스트, 연간 로드맵, 피아노 레슨 노트 등등. 스프레드시트에 담긴 그녀의 꼼꼼함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되어 준다. 뜻밖, 1만3000원.



▶초등 1학년 필수 어휘 100개의 기적(박은주·윤희솔 지음)=초등 1학년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 공부 자신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필수 어휘 학습서다. 초등 1학년의 학교생활, 공부에 '지금 당장' 필요한 어휘들만 총망라했다. 20년 경력의 초등교사 저자는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 수업 시간, 평가 시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필수 어휘를 엄선해 재미있는 만화와 퀴즈로 설명한다. 위즈덤하우스, 1만3800원.



선진국 모델 사라진 시대 어느 곳 향할까

라종일·김현진·현종희의 '한국의 발견'

코로나로 빛은 콤플렉스 새로운 인간상 실현할 때

정치학 박사로 주일 대사, 주영 대사 등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좋은 면 하나를 꼽았다.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벗었다는 점이다. 과연 선진국들이 인류 차원의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란 의문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당선 이후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고 코로나를 계기로 그걸 더 확실히 알아줬다고 했다. 선진국을 연구하고 찾아가면 저절로 잘 되리라고 여겨온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라종일 교수가 김현진·현종희 작가와 함께 엮은 '한국의 발견'엔 그 해답을 찾아 나선 여정이 담겼다. 현종희 작가가 정리한 라교수의 강의를, 김현진 작가가 라

교수와 주고받은 서신으로 구성된 책으로 독자들에게 말하듯이 전개된다.

라 교수는 건국 이래 우리의 세계가 이른바 선진국들이 서방이었고 이들이 우리 발전의 기준이었다는 점을 짚는다. 1980년대 중반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한국이 발견한 한국이 아닌, 외부에서 호평한 한국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비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드물었다. 문제는 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지켜 내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지표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으로 생각했던 나라들이 우리보다 못한 경우를 종종 본다.

근래 한국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등 연애나 스포츠 등에서 높은 성취를 이룩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북한 현실과 체제 양상, 그에 따른 분단 극복



문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게는 선진국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는 라 교수는 '사람'의 문제를 꺼냈다. 그는 말한다. "한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 혹은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관한 새로운 이해 혹은 인류 차원에서 큰 호소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인간의 상(像)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루아크, 1만7500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빈틈없는 먹이 그물로 얽힌 곤충의 세계

정부희 글·사진 '곤충의 밥상' 재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3분의 2가 곤충이다. 알려진 곤충의 종수만 100만 종에 이른다. 몸집이 작은 곤충이 달랑 네 장의 날개와 여섯 개의 다리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까지, 땅속부터 공중까지 곳곳을 누비며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곤충의 밥 덕분이다.

곤충학 박사인 정부희의 '곤충의 밥상'엔 먹이 그물로 얽힌 곤충의 세계가 촘촘하다. 생태사진이 더해진 800쪽 분량의 책으로 2010년 초판 이후 연구한 내용을 덧붙이고 과학적 진실에 대한 소소한 오류를 바로잡아 재출간됐다.

'곤충의 밥상'을 통해 우리 곤충들이 각자의 식성에 맞게 먹거리들을 선택한다는 걸 알게 된다. 곤충들은 식물, 동물, 버섯 같은 균, 톱,

미생물. 심지어 시체까지도 먹는다. 그중 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이 전체의 30퍼센트다. 곤충들은 평생 동안 특정 식물을 찾아 먹고 거기에서 제각기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 먹는다. 만일 모든 종류의 곤충이 모든 식물을 닷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면 식물은 사라질 수 있고 식물을 먹는 곤충도 먹이가 바닥나 연쇄적으로 멸종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곤충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부위를 달리 해 식사하기 때문에 식물도 살고, 곤충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

숲이나 길가에 놓인 뽕이나 죽은 동물은 부식성 곤충들에게 최고의 영양밥이다. 곤충은 그것들을 작은 유기물이나 무기물로 분해해 식물이 다시 먹도록 땅으로 되돌린다. 버섯살이 곤충들은 자연의 분해자로 건강할 숲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다. 자기보다 힘없는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성 곤충 역시 빈틈없는 생존전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 박사는 "수많은 생명들의 맥박을 쉽게 끊어 없애는 먹이망을 중심으로 풀 한 포기에서 펼쳐지는 기막힌 곤충의 인생 사는 경이로움 그 자체"라며 "이제 길 옆에 있는 풀 하나, 나무 한 그루, 썩은 통나무, 버섯 한 송이를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리, 6만원. 전선회기자

이 책 강명희 소설집 '65세' 긴 하루 건너는 그들을 위한 노래들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강명희 작가가 세 번째 소설집 '65세'를 묶었다.

"저에게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한라일보에게 드립니다." 작가는 맨 앞장에 그런 글귀를 써서 창작집을 신문사로 보내왔다.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2003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발을 디딘 강명희 작가다. 빛나던 서른의 한때 제주에서 살았다는 그는 당시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대책 없는 내 연인은 결국 이렇게 다시 찾아왔다"는 당선 소감을 전한 일이 있다. 신춘문예라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단한 그는 10년의 준비 끝에 2013년 첫 소설집을 냈고 2015년 두 번째 소설을 발표했다.

이번엔 6년 만에 세 번째 소설집 '65세'를 묶었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 작가는 표제작 등 9편의 단편 대부분을 그곳에서 썼다. 농촌살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은 없지만 그는 "모든 65세에게" 바친다는 소설들을 두고 "시골에서 인생을 관조하며 자연과 생명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버림받았다 여기는 인물들

고통과 연대 환기하는 9편

가락'에는 농가 주택에 딸린 조립식 방에 사는 구두 수선공이 그려진다. '긴 하루'엔 천룡을 어기고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을 안고 사는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번 생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독심으로, 담담함으로, 어떤 이는 뒤늦은 깨달음으로 세상을 건너는 법을 알아 간다.

'목련꽃 필 무렵' 속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연처럼 때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 너머의 진실에 가닿으려는 끝없는 몸부림인지 모른다. '지난 여름날의 판타지'에서 주인공이 "이 여름에 만난 두 여자"를 통해 소설 작업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느꼈듯, 작가는 또 한 번 "진정성"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려 했다. 도화, 1만3000원. 전선회기자

그려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이들은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믿는 사회 안에서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이거나 미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과 더불어 연대를 환기시킨다.



축

취 임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마사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욱 큰 영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